

# '결혼도 육아도 익산에서'

### 전국 최대규모 파격지원...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로 인당 최대 1억7000만원 수혜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 지원에 더해 신혼부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사업 확장으로 인구 위기 극복에 나선다

익산시는 올해 기존 청년 사업을 확대한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를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결혼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신혼부부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혼인 첫해에 400만 원을, 이듬해부터 3년간 매년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 문제해결의 시작점을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판단하고 실현 방안 찾기에 매진한 결과다. 앞서 시는 이미 2022년 보건복지부와 결혼축하금 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익산에 1년 이상 주소록을 둔 부부다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익산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지급 기간 중 이혼하거나 타시·군으로 이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시는 또 젊은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대규모의 주거 지원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내로 다담돌 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 주택자금 대출상품에 시 자체적으로 이자 3%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담 없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거 자금 목적으로 금 융권 대출을 실행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택자금 대출상품 이자를 최대

3% 지원하고 있다

청년은 만 19~39세 중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중 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는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를 통해 한 사람당 최대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생부터 취업·창업과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이어지는 혜택이다

우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100만 원을 취업준비생에게는 △구직활동비 300만 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지원한다. 창업 청년에게는 인프라구축비 1,300만 원, 드림카 구입 1,000만 원, 위드워크 패키지 등으로 힘을 보탠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31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 '설 명절 맞아 시민 곁으로'

### 익산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31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최종오 의장, 한동연 부의장을 비롯한 의정단은 31일 오전 사회복지시설인 오산면 소재 남전노인복지센터와 신용동 원광성북원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같은 날 오후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서동시장을 찾아 지역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장

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덕담을 나누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최종오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희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사업 '마음 씬'

군산시가 지난 31일 광명 테이크 오프에서 열린 2024년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총회에서 군산시의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사업인 '마음 씬' 사업이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시가 수상한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사업인 '마음 씬'은 학령기 이후 소외된 재가 발달 장애성인을 대상 중증 발달장애성인의 이동 불편 및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 가정으로 찾아가 진행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140명의 발달장애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고, 매년 신규 대상자 발굴 및 기존 참여자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는데,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좋은 정책상'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최초이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 196개 지방자치체 평생학습도시 단체장과 74개 교육장이 회원으로 되어있으며, 군산시는 2007년 가입하여 그동안 전국 평생학습도시들과 우수 평생교육정책 공유 등 활발히 교류하며 평생학습 사

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2021년부터 전북권역 12개 평생학습도시 대표도시로서 그동안 전북평생학습도시 워크숍, 세미나 및 우수사례집 발행 등 활발히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이자 유일하게 시지역의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운영,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평생 학습도시로서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와 학습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선도적인 평생학습도시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청 전직원, 서천 특화시장 화재 성금 3100만원 전달

군산시청 직원들이 지난 22일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3,1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31일 열린 기탁식은 서천군청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임준 군산시장,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일 군산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화재 피해를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도 "군산시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는 지난 22일 발생하여 점포 227개 동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시 공직자들은 화재 소식을 접한 후,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제9기 소셜미디어기자단 발대식 개최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익산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제9기 익산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지난 3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취재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분야별 최대 4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소셜미디어 기자들에게 위촉장과 기자증을 전달하고 기자단 활동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소셜미디어기자단은 향후 시의 다양한 소식, 명소, 맛집, 문화·관광, 축제, 주요 정책 등을 직접 취재해 생생하고 개성 있는 기사들로 익산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로 제9기를 맞는 익산시 소셜미디어기자단 모집에는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01명이 지원했다. 관련 경력과 소셜미디어 운영 사항, 팔로워 수 등을 고려해 일반기자 15명, SNS기자 5명, 영상기자 7명으로

구성된 총 27명의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춰 효과적인 시 홍보를 위해 작년보다 영상기자의 수를 늘렸다. 솜품 영상 제작을 통해 콘텐츠 형식을 다양화하는 등 트렌드에 맞는 SNS 홍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연구자 등 서로 다른 배경을 통해 참신한 시각을 제공해 익산시 블로그와 공식 SNS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전문 블로그와 각종 공모전 수상자는 물론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 등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전 부시장은 "익산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시의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의 일상에서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쾌적한 도시 조성 현수막 일제 정비 나서

익산시가 내달 말까지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정담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개정안은 정담 현수막 설치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등이다

시는 주택가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까지 우회측을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4주간 집중점검·단속에 나선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롯데물군산점 농수특산물 특판전 열어

군산시(시장 김임준)와 롯데물군산점이 지역상생 일환으로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군산지역 농수특산물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롯데물군산점이 협력하여 지역 우수농수특산물을 홍보하고 중소 지역업체 생산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장으로 롯데물군산점(조촌동 소재) 1층 중앙광장에서 행사기간 동안 10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군산지역 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19개소가 참여하는 특별판매전에는 한과, 꿀, 떡, 잡곡, 딸기, 꽃게장, 건어물, 축산가공품, 수제 맥주 등 80여 개의 우수산 설명설 선물세트를 최대 31%까지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농·어업인이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역 농수특산물 특별기획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